



3분기 매출 9조1,201억원, 영업이익 820억원, 당기순이익 2,524억원

SK에너지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글로벌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및 정제마진 부진, 환율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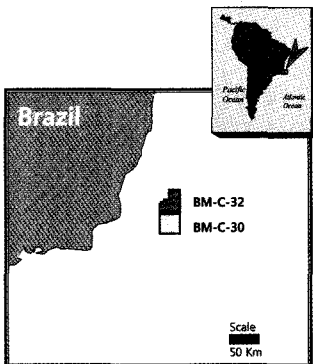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09년 3분기 실적설명회'를 통해 매출액은 9조 1,201억원, 영업이익은 82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 8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규모도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2,524억원을 기록했다.

SK에너지의 이러한 실적은 주력사업인 석유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SK에너지는 석유사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5조 7,992억원을 기록했으며 1,957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의 영업손실은 올해 2분기의 683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석유사업의 이 같은 영업손실은 단순정제마진과 크래킹 마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3분기 들어 해외 정유업체들의 신 증설에 따른 공급증가와 석유제품 수요 부진 등이 겹쳐 정제 마진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원화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도 영업이익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사업과 더불어 SK에너지의 양대 축인 화학사업은 매출액 2조 7,214억원과 영업이익 1,737억원을 기록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영업이익이 5,62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 연간 영업이익 6,310억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 관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해 "글로벌경기 침체 및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부진 등으로 석유사업이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전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4분기에 더욱 개선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에너지, 브라질 BM-C-30 광구에서 원유 발견



SK에너지가 브라질 BM-C-30 광구 시추 결과 원유층을 발견했다고 지난 11월24일 발표했다.

BM-C-30 광구는 지난해 10월 광구 남부지역에서 시추를 진행한 결과 1차적으로 원유부존을 확인하였으며, 이

어 올해 하반기 광구 북부지역에서 시추를 진행하던 중 암염층 하부 약 27미터 구간에서 양질의 원유층을 최근 발견하였다. BM-C-30 광구는 브라질 에스피리투 산토(Espirito Santo) 연

안의 캄포스(Campos) 분지에 위치한 해상광구로, SK에너지는 2004년 11월부터 이 광구에 참여해 탐사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광구에는 SK에너지(지분율 20%)를 비롯하여, 미국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아나다코(Anadarko Petroleum Corp., 지분율 30%), 미국 데본에너지(Devon Energy, 지분율 25%), 인도 IBV(지분율 25%) 등 총 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광구 참여사들은 추정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유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지분율에 따라 매장량의 20%를 확보하게 된다.

SK에너지 유정준 R&C(해외사업 및 화학사업) 사장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제기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Global 사업 확대 전략에 따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또 한번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개발 성과를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임러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

“SK에너지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에너지는 독일 다임러 그룹 글로벌 하이브리드 센터(Global Hybrid Center)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미쯔비시 후소(Mitsubishi Fuso)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될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업체로 지난 10월24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SK에너지는 앞으로 진행될 다임러 그룹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프로젝트에 우선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함은 물론 글로벌 대형 자동차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본격적인 세계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데 한층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다임러 그룹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은 SK에너지의 자동차용 전지의 품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과의 추가적인 공급 및 제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촉매 기술’ 전략 수출제품으로 부상

석유화학산업에서 ‘마법의 돌(Magic stone)’이라 불리는 촉매 기술이 SK에너지의 전략 수출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국내 최초로 ATA촉매, SCR촉매, ACO촉매 공정기술 등 석유화학공정의 필수 요소인 촉매를 개발해 온 SK에너지는 최근 이들 촉매의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ATA촉매를 대만 포모사(Formosa)에 판매해 로열티 수익으로만 약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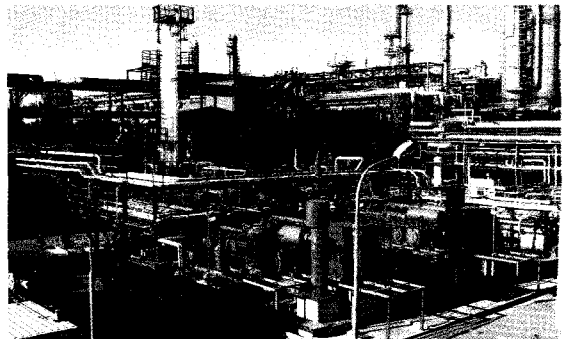
ATA촉매기술은 1999년 개발해 울산컴플렉스에 우선 적용 돼 이익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기술 라이선싱을 추진해 지난 2002년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ATA촉매는 인도 릴라이언스社, 대만의 CPC社 등 국내외 10여개 공장에 공급돼 단일 품목(제품, 기술)판매로만 100억원 이

상의 누적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수출 효자 품목일 뿐만 아니라, SK 에너지의 촉매 기술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촉매에 따라 화학공정이 만들어지고, 촉매의 성능에 따라 공정의 성능이 결정될 정도로 촉매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기술”이라며 “2000년 초부터 다양한 촉매 기술을 개발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 수출 및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개발 기술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폐기물(NaOH) 처리공정으로 CO2 1만톤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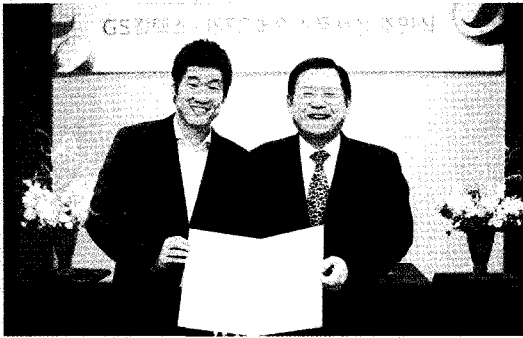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정유 및 석유화학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 공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SK Green WAO(Wet Air Oxidation, 습식산화공법)’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고 지난 11월29일 밝혔다.

기존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황 성분을 제거하는 것 이 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 가성소다(NaOH)가 사용된다. 이 중 사용되고 남은 폐(廢)가성소다는 그동안 소각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SK에너지가 개발한 WAO 공법은 폐(廢)가성소다를 산화 처리한 후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 최종 처리한다. 따라서 기존 소각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나 CO₂ 배출 등에 있어 친환경적인 신기술이다.

SK에너지는 독일 지멘스사와 2007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오다 작년부터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착수, 성과를 이뤄냈으며, 1일 처리능력 300톤 규모의 이번 공정 가동으로 연간 1만톤의 CO₂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S칼텍스-JSFC 메인스폰서십 체결



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활동 중인 박지성 선수가 유럽 무대를 통해 배운 축구의 노하우를 국내 유소년에게 전수하기 위해 설립한 유소년 축구클럽인 JSFC(Ji-Sung Football Club)와 메인스폰서십을 지난 10월 9일 체결했다.

GS칼텍스는 향후 박지성 선수 및 JSFC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교육의 질적 향상 및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협력관계로 함께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축구센터 건립 기공식이 지난 10월 6일 수원시 망포동 부지

GS칼텍스와 신일본석유 간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9월 28일 대전 VCC에서 신일본석유와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교류 세미나에서는 양사의 연료전지, 수소스테이션, 바이오연료, Sulfur 활용 관련 신기술 및 개발 동향 등의 내용으로 상호 발표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전 VCC 실험실 투어 및 서울 신에너지연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GS퓨얼셀, GS나노텍 실험실 투어도 함께 진행하였다.

더불어 GS칼텍스와 신일본석유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소개 및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양사는 앞으로 기술교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연구협력 분야를 넓혀가기로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술마루' 기공식 개최

지난 11월 5일 GS칼텍스는 여수문화예술공원이 들어서게 될 부지 현장에서 허동수 회장과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공



원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원 명칭을 '예술마루'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여수시 망마산 및 장도 일원 701,740㎡(약 21만 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술마루는 주요 건축물을 지하에 배치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핵심시설인 공연장과 전시장은 유리 지붕을 이용해 망마산 계곡에서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물의 흐름을 영상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조형물로 건립되어 여수를 대표하는 명소가 자리 잡게 된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여수문화예술공원은 여수의 아름다움과 문예의 깊이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여수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어 여수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GS칼

텍스는 기업시민으로서 여수시 및 여수시민과 늘 함께하겠다"고 밝혀 여수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거듭 밝혔다.

GS퓨얼셀과 현대건설, 연료전지 보급위한 MOU 체결

GS퓨얼셀은 지난 9월 25일, 신에너지연구센터에서 현대건설과 내년도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일 경영전략본부장 등 GS칼텍스 임직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GS퓨얼셀 배준강 대표이사외 현대건설 김태구 전무(기술품질개발원장)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내년도 연료전지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적극적 사업협력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여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은 공동 주거단지에 본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도심형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료전지를 우선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퓨얼셀은 타 건설사로서의 확대를 통해 연료전지의 보급 및 적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 산학협력관 준공식 거행



GS칼텍스는 지난 11월 2일 연세대학교 내 GS칼텍스 산학협력관 1층 석산홀에서 GS칼텍스 산학협력관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GS계열사 사장,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및 박삼구 이사 등 연세대학교 현직 이사회 임원과 송자, 김우식 전임 총장 등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

해 GS칼텍스 산학협력관 준공을 축하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GS칼텍스 산학협력관 기증에 따른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GS칼텍스 산학협력관 건물기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GS칼텍스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였다.

'2009 로하스(LOHAS) 경영대상' 대상 수상

GS칼텍스는 '2009 로하스 경영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환경재단에서 주관하는 로하스 경영대상은 2004년을 시작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해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업체를 수상하여 모범적인 기업을 알리기 위해 선정해 온 상이다.

이번 수상은 정유업계 최초로 대상에 선정된 점과 시민사회로부터 GS칼텍스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수상 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간된 32개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학계와 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가, 환경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하여 선정된다.

ULVAC와 공동기술개발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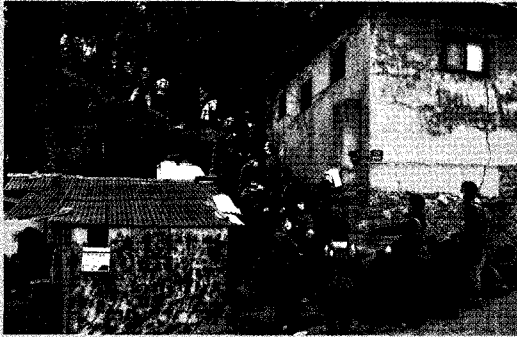
GS칼텍스는 지난 10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반도체 및 LCD 장비분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ULVAC(주)와 박막전지 양산장비를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일 경영전략본부장, ULVAC의 나카무라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박막전지 양산기술 및 박막전지 제조기술에 관한 공동 개발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박막전지의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을 위해 일본 전자부품 대기업인 이나바타산업(주) 및 ULVAC ES(주)와 일본 내 박막전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일본 전자부품 회사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전자·전기 회사를 대상으로 한 박막전지 판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S-OIL,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따뜻하게 지내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과 힘을 합쳐 온정을 선물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S-OIL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에서 'S-OIL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를 도왔다. 이날 오전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50여명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홍제3동 '개미마을'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연탄 400장씩을 직접 배달하고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도 연탄 40,000장을 기부했다.

수베이 CEO는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이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발대식



S-OIL은 은 지난 11월19일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보호와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향상, 미래의 환경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S-OIL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은 전국 대학 생물·생명과학 전공 학생과 대학원생, 야생동물보호 동호회 회원 등 지원자 38명으로 구성되어 천연기념물 보호 봉사활동은 물론 개체수 증대를 위한 탐사·연구 활동도 수행할 계획이다. S-OIL 관계자는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의 국내외 세

미나 참가 및 해외 탐사활동 지원, 우수 활동자에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지킴이단원을 추가 선발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임직원 참여 'Superman day' 행사 열어

S-OIL은 지난 10월 13일 과천 서울대공원 및 관문 체육공원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임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OIL Superman day' 행사를 열고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가졌다.

S-OIL 체육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오전에 서울대공원 순환코스(6km) 트래킹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성(姓)씨 별로 팀을 나누어 줄다리기, 집단 축구 등 다양한 게임들이 펼쳐졌다.

평소 자신을 전주 이(李)씨라고 소개해 온 수베이 CEO는 이씨가 포함된 팀(참수리팀)의 주장으로 모든 게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스킨십 경영으로 직원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수베이 CEO는 '이번 체육의 날 행사는 S-OIL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을 위한 행사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부서 및 부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에쓰오일 울산복지재단 어려운 이웃에 난방유 전달



S-OIL울산복지재단(이사장 하성기)은 연말을 맞아 울산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난방유 1억원 상당을 울산시에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12월 4일 오전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박맹우 울산시장, 최일학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명규 S-OIL복지재단 이사, 신동열 에쓰오일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에 기증한 난방유는 울산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500세대에 전달될 계획이다.

공장 협력업체 상생 파트너십 체결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S-OIL-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식이 지난 10월 22일 온산공장에서 열렸다. 쌍일실업 외 13개 협력업체 대표와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은 공장-기업-협력업체 간 안전보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S-OIL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전담 팀으로부터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 이를 토대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체제 자율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공장 동력 스팀보일러에 NOx 저감시설 완비

S-OIL이 국내 4개 정유회사 중 가장 먼저 모든 동력 스팀보일러의 후단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을 완비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2010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150ppm이하)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자해 Bunker-C를 연료로 사용하는 동력 스팀보일러 8기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NOx 저감 시설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은 촉매반응기를 사용해 NOx를 제거하는 설비로, 현재 개발된 NOx 저감기술 중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미 LA에 윤활기유 저장·판매 개시

S-OIL 윤활기유 'Ultra-S' 제품의 미국 웨스트 코스트 시장 마케팅이 본격화된다. S-OIL은 미국 파트너사인 코노코필립스와 업무 협력을 통해 지난 11월 23일 'Ultra-S 4' 3천 톤을 LA소재 코노코 소유 저장시설에 하역함으로써 미 서부지역 저장 판매를 개시했다. 이로써 수송 비용·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고객 서비스 개선은 물론 윤활기유 거래선 확대, 미국 걸프지역 천재지변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됐다. S-OIL은 윤활기유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서부지역에 Group III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코노코와 시장의 수요추이를 파악해 LA지역에서 Ultra-S 4 이외에 다른 유종의 저장·판매도 개시할 계획이다.

불우 아동에게 난방유 전하는 파란산타 찾아오



현대오일뱅크가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가득! 희망에너지 캠페인'을 펼친다. 이 행사는 고객들이 평소 주변에서 접하는 생활 환경이 어려운 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안타까운 소식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에 글로 담아 올려주면 현대오일뱅크가 파란 산타 역할을 해 이들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1 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재단에 지원금을 기탁하고 행사 운영 및 심사를 맡겨 공정하

게 진행된다. 각 가정 마다 약 20만원 정도가 전달될 예정.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5년부터 그 동안 약 1천여 명의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사랑의 난방유를 전달하며 파란산타의 사랑을 전했다.

BTX 합작법인 HC페트로켄, 사무실 개소식 후 본격적인 업무 돌입



HC페트로켄은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올리버타워 16층 HC페트로켄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월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원안대로 현대오일뱅크와 대우 코스모 석유가 50대 50의 지분 투자하여 공동 설립키로 한 'HC페트로켄'을 최종 승인하고 26일 회사 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HC 페트로켄은 회사 설립을 끝내고 현대오일뱅크 신방호 부사장과 켄지 호사카 전무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총 18

명의 구성원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사무실 개소식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현대오일뱅크와 코스모오일 양측 모두의 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회 파란세상 파란마음 초등학교 글·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현대오일뱅크가 주최한 전국 초등학교 대상, 제 4회 파란마음 파란세상 글·그림 공모전에서 경북 포항초등학교 2학년 김진주 양의 '나무는

내 친구' <사잔>와 대구 사월초등학교 2학년 최시원 군의 '옛날옛날에는' 이 글, 그림 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현대오일뱅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연사랑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공모기간을 거쳐 총 310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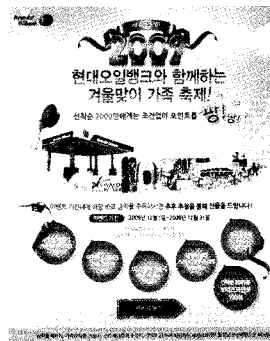
창작그림과 127편의 글이 응모했다. 응모작품 심사위원으로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민여경 작가, 화가 이종선·진정현 씨 등이 참여했다.

사는 업계 종사자 및 유공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 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공장 무재해 운동 재 개시

공장 안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 공장 무재해 운동이 지난 11월 29일 자정부터 재 개시된 것. 무재해 운동은 공장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지속적인 안전설비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 공장 무재해 운동은 300만 인시 무재해 달성을 앞두고 11월 28일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 바퀴가 펑크 나면서 운전하고 있던 직원이 상해사고를 당해 중단됐다. 환경 안전팀은 무재해 운동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각 공정 조정실의 출입구 마다 무재해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은 팀 및 과별 공정 안전 가동 목표, 현재 강동일수 및 목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재해 전광판은 정제1팀 및 정제2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전 공장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듀 2009! 현대오일뱅크와 함께하는 겨울맞이 가족 축제



현대오일뱅크는 2009년을 보내는 연말을 맞아 보너스 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W호텔 1박2일 투숙 패키지 등 총 2,180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아듀 2009! 현대오일뱅크와 함께하는 겨울맞이 가족 축제'를 펼친다.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은 W 호텔 패키지 외에 아웃백 스테이크 가족 외식권, 대명 비발디 파크 리프트권 및 LG 초음파 기습기 등 겨울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2009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에서 박병주 과장 공로상 수상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후원한 2009년도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 대회에서 현대오일뱅크 품질운영팀 박병주 과장이 유사석유제품 근절과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한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

제회 찾아가는 오일뱅크 1일 환경 학교 성황리에 개최



지난 12월 7일과 9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초등학교와 안성시 신평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오일뱅크 1일 환경 학교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제4회

파란마음 파란세상 글쓰기 그림그리기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한 학교에 부상으로 주어지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자연을 아끼고 가꾸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12월 7일 평택 이충 초등학교에서 열린 오일뱅크 1일 환경 학교에서는 환경재단의 전문 교사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기후변화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고, 나무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